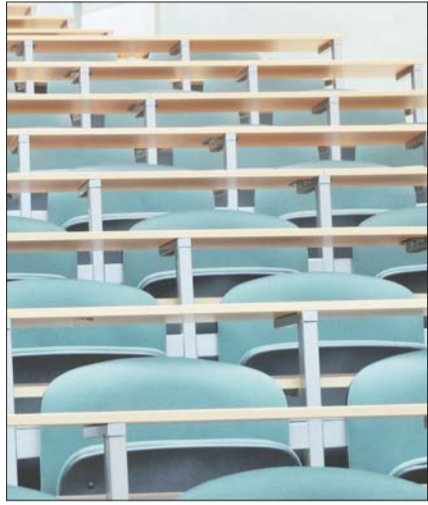


# ‘강사 잡는 강사법’… 법 시행 첫 학기 강좌 6천여개 감소

전체 강좌 작년비 1.3%p 줄어  
사립, 수도권 대학 감소폭 커  
전임교수 강의 부담 증가



유투이미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대학 강좌 약 6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와 반대로 강사 일자리가 줄면서, 대학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6개 대학의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2학기에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1만5614개로, 지난해 2학기 12만1758개보다 6144개 감소했다.

전체 강좌 대비 비율로 보면 올해 39.9%로 지난해 2학기(41.2%)에 비해 1.3%포인트 줄었다. 학생 수 20명 이하 강좌 비율은 2017~2018년에도 1.9%포

(11.2%→11.6%)과 31명~50명 강좌 비율(26.3%→26.4%) 등 대형 강좌 비율은 늘었다.

수강 학생이 많은 대형 강좌는 학생 1인당 비용이 적게 들지만, 교수와 학생의 접촉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 교육의 효과는 소형 강좌보다 낮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대형강좌는 보통 유명 인사나 외부 스타강사를 초빙해 이뤄진다.

반대로 소규모 강좌는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교수와 학생간 소통 가능성이 높아 교육 효과는 대형강좌와 비교해 크다. 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인포스테이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소형 강좌를 운영한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대학들이 강사를 대규모 감축하면서, 소형 강좌부터 감소해 대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전임교원이 맡은 학점 역시 대폭 줄었다. 올해 2학기에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22만5762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24만7255학점에서 2만1493학점 감소했다. 대학 강좌가 한 강좌당 2~3학점인 점을 고려하면, 비전임교원의 일자리가 1년 만에 약 8600개 사라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상당폭 늘어났다. 올해 2학기에 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은 총 47만5419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46만4735학점보다 1만684학점 늘어 전임교원 강의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내년 2월경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학 강의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대학 재정 지원사업 등에서 강의 규모와 수 등을

연계해 반영할 계획이지만 그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속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임교원 확보를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한 대학 관계자는 “강좌 수나 형태 등까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불이익을 줄 경우 재정 여력이 낮은 소규모, 지방 학교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순천향대 나눔교육 성과 나누는 ‘사색 페스티벌’

순천향대의 상징적 교육 문화축제  
전문가 초빙 멘토링, 1년 활동 전시



순천향대학교가 지난 30일 ‘2019 순천향 나눔교육 사색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순천향대

순천향대학교가 지난 30일 오전 10시 교내 향설1 생활관과 SRC 문화광장 일대에서 제5회 ‘2019 순천향 나눔교육 사색(四色·思索) 페스티벌’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나눔교육 사색(四色) 페스티벌은 순천향대의 대표적인 교육브랜드인 나눔교육의 성과와 실체를 ▲SRC 나눔 페스티벌 ▲나눔문화 페스티벌 ▲메이커 페어 페스티벌 ▲핵심역량 페스티벌 등 4가지 테마로 선보이는 장이다.

순천향대는 이 행사를 지난 1년간 학생들의 성과 공유와 미래 나눔교육 비전을 모색하는 등 대학의 상징적인 교육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 ▲‘SRC 나눔 페스티벌’은 중국학과 등 17개 학과 멘토링팀을 비롯한 웨어링 등 25개 동아리의 ASP 홍보, 체험, 전시, SRC인생사진관, 버스킹 특별

공연 ▲‘나눔문화 페스티벌’은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적정기술 나눔실천 프로젝트, 순천향 리빙랩 프로젝트 홍보, 컬러테라피, 미니건강체크 등이 열렸다.

또한 ▲‘메이커페어 페스티벌’은 전문가 초빙 메이킹 클래스와 다면적졸업 인증제 설명, 페이스스캐너, VR체험, 3D작품 전시 ▲‘핵심역량 페스티벌’은 학습프로그램 우수사례 전시, 학습지원 프로그램 풀기, e-학습 포트폴리오 안

내, S.C복수전공 홍보, VR면접 체험 등 1년간의 활동 결과를 전시했다.

전문가 초빙 멘토링도 관심을 끌었다. 이날 제과제빵 전문가, 댄스전문가, 공연전문가 초빙체험 멘토링이 각각 진행됐다.

아울러 SRC 문화광장 상설무대인 야외공연장에서는 밴드, 기타, 클래식 등 각 공연 동아리별로 준비한 멋진 공연과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손현경 기자 son89@

## 윤선생 ‘초통영’ 기간 한정 할인행사… 최대 37%

오늘부터 12일간 ‘빅스마일데이’



윤선생 초통영 학습 모습 /윤선생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자사 영어학습 상품 ‘초통영’이 이베이코리아의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11월1일~12일까지 G마켓·옥션에서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윤선생 초통영은 ‘초등학교에서 통하는 영어’의 줄임말로, 예비초등·초등 저학년 학습자를 위한 기초 초등영어 학습상품이다.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갖는 공통적인 니즈를 반영해 파닉스, 말하기, 읽기 등 초등영어 대비에 맞춰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행사 기간 동안 기본 할인에 G마켓과 옥션 고객에게 발급되는 15%~20% 할인쿠폰을 더해 최대 37% 할인된 가격과 함께 학습기간 2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한국현대도예가회 이사장에 김시만 성신여대 교수 내정

성신여대공예과 김시만 교수(사진)가 한국현대도예가회 제8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까지 12월까지 2년이다.

사단법인 한국현대도예가회는 1978년 창립돼, 주로 대학 교강사 및 전업작가들로 구성되어 4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예단체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단국대 72년 역사 담은 ‘단국역사관’ 개관

개교 72주년을 맞는 단국대가 대학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대학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단국역사관’을 1일 개관한다고 31일 밝혔다.

단국역사관은 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후 최근 완공했으며 지상 6층 규모(연면적 5432㎡)로 ▲대학역사관 ▲컨벤션홀 ▲MOU실 ▲대학유물 수장고 ▲행정사무실 및 회의실 ▲주차장 등을 갖췄다.

건물 2층에 들어선 대학역사관은 해방 후 설립된 대학 중 최초의 4년제 정규대학으로 개교(1947년)했던 당시부터 서울 한남동캠퍼스 → 천안캠퍼스 개교 → 죽전캠퍼스 이전에 이르는 72



단국역사관 /단국대

성상의 시간을 압축해 사료중심의 전시 공간으로 문을 연다. 전시공간은 4개 섹션으로 구성돼 이미지나 영상보다는 문서, 사진, 유물 등 철저히 사료 중심으로 실제 역사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한용수 기자 hys@

####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재일코리안 영화제’

동국대 일본학연구소가 오는 11월8일과 9일 양일간 동국대 문화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일코리안 영화제\_일본영화 속 재일코리안을 다시 본다’를 개최한다.

영화제는 ‘돌아온 주정뱅이’, ‘교사형’, ‘박치기!’,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등 4편의 영화 상영과 2편의 대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시마 나기사(大島渚)의 1968년 영화 ‘돌아온 주정뱅이’와 ‘교사형’, 그리고 1968년을 배경으로 제작된 이즈쓰 가즈유키(井筒和幸)의 ‘박치기!’(2004)는 1968년과 관련된다. 베트남 전쟁 반대와 일본의 자유, 민주, 독립의 목소리가 생생한 1968년 일본에 김희로 사건으로 대표되는 타자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었다.

/한용수 기자

#### 세종대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 해외석학 특강

세종대학교는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센터장 최수미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최근 세종대 광개토태양관에서 해외 석학 마르쿠스 그로스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 및 전시행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대학ICT연구센터(ITRC) 사업으로 개발한 ‘모바일 플랫폼 기반 엔터테인먼트 가상현실 기술’ 전시를 참관하고, 국제공동연구방

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의 전시를 시작으로 최수미 센터장의 환영사, 알렉산드라 아피첼라 주한 스위스 대사관 과학기술협력실장의 축하, 마르쿠스 그로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교수의 특별강연, 감사패 수여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그로스 교수의 강연에는 세종대 대학생과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용수 기자